

“공포를 먹고 사는 사회가 지옥이라면, 한국은 □□□□”

행복한 책 읽기

김선주 '홍산문화' (상생출판) 刊

비굴의 시대

박노자 지음



아이가 맞고오면 “너도 때려, 태권도 배워” 사회적 체면 상실의 공포에서 시작된 비굴 ‘국민불행의 시대’ 벗어나려면 연대해야

괴물과 싸우면 어느새 괴물을 닮아 버린다. 한국 근대사에서 지배자가 더럽지 않았던 시절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그들에게 당하기만 했던 피지배자마저도 지배자의 의식과 행태를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몇몇 운동권 출신 정치인 또한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한국 이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인 그는 신간 ‘비굴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왜 비굴해졌는지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비굴’ 그 자체다. 또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비굴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저자는 한국의 개발주의는 물론 신자유주의가 국가 주도로 진행됐다고 진단한다. 또한 국가와 자본이 앞장서서 더러운 세상에서 살 사람을 만들어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은 이제 거의 국시(國是)가 됐다.

최근 군대 내에서 벌어진 비인간적 폭력 행위를 예로 들어 보자. 군 폭력은 학교 폭력과 닮았다. 내성적이고 적응을 하지 못하며 약해 보이는 동료를 골라 집단적으로 괴롭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자들의 집단’에서 배제되고, 자신 또한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굴은 공포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존재하는 동안 늘 무엇을 두려워한다. 과거 자연의 힘을 두려워했던 인간은 국가와 자본의 힘을 신격화한다. 현대인의 삶은 때 순간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공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나옴에 대한 공포가 있다. 과거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어린시절 폭력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자. 폭력이 주는 통증보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다. 이처럼 사회적 체면 상실은 무섭다.

저자는 “공포를 먹고 사는 사회가 지옥이라면 대한민국은 구간지옥이 맞다”고 강조한다.

가령, 아이가 맞고 오면 부모는 “너는 왜 맞기만 하니, 너도 때려, 태권도 배워” 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문화가 지옥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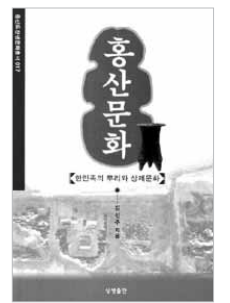
저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에 없는 것 중 하나가 ‘평화 세력’이라고. 또 근면적 물음이 거세된 사회로 규정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4분의 1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보수화된 사회에서는 ‘왜’라는 물음도 점차 사라진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희망은 마지막에 죽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구간지옥을 벗어나는 법은 ‘연대’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 ‘국민 불행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공포가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게임물을 연대해서 정하면 된다. 나는 물론 우리 모두 공포 속에서 산다는 것, 그러기에 다 같이 연대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출판·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산문화에 대한 관심은 신화 공부로 입에서 흑피옥을 보고나서였다. 실제 소장자에게 빌려온 몇 점의 옥 유물을 보고 모두 경탄했다. 최근, 일본 교토에서 흑피옥 전시회가 열렸다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그때의 경이로움을 기억해냈다.



흑피옥은 홍산문화 시대의 유물로, 홍산문화는 세계 4대문명보다 1~2천년 이상 앞선 인류의 시원문명이라 한다. 중국 학자들은 “여러 발굴 결과를 토대로 홍산문화는 황하문명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산문화 발굴지인 요하지역은 중국 내몽골자치구 적봉시 동북방의 산 이름이다. 홍산은 “이름 그대로 산 자체가 적황으로 뒤덮여 온통 붉은 색이다.”

1983년 중국 요하지역 우하량에서 원형 피라미드가 발견된 후, 중국은 ‘요하문명’이라 이름 지었다. 요하문명, 즉 홍산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적석총(積石塚)이다. 한 민족의 전형적 무덤양식은 그 민족의 고유 전통으로 이는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묘장법(墓葬法)”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제 문헌상으로 볼 때 홍산문화와 동일한 묘장법을 채용했던 나라는 고조선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의 묘제는 토광묘(土壙墓)로 홍산문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홍산의 여신, 응녀

(紅山)

지역학적으로 보자면 홍산은 동북지역의 수렵민이 농경문화와 가장 먼저 접촉했던 지역이다. 신화학자 조셉 켈번은 “신석기 시대는 정확하게 원-신석기적인 식물재배 기술과 동물사육 기술이 만난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그의 저서 ‘원시신화’에 기록했다. 이는 김선주의 저서 ‘홍산문화’에서 본다면 “우리 역사의 환단시대”이기도 하다.

신라 고승 안함로의 ‘삼장기’에는 “여러 명철한 인재를 두루 모아 신하로 삼고, 응녀족 여인을 맞이하여 황후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삼국유사’의 “때마침 곱 한 마리와 밍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라는 문장과 맞닿아 있다. 농경민 곱 토템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수렵유목민 환웅족의 정착신화인 것. 이는, 곱을 토템으로 하는 응녀족이 환웅족에 의해 문명화된 기록이다.

책의 저자 김선주에 의하면 홍산문화는 “동이족이 이룩한 중심지역으로 요서 일대의 신석기 문화 모두를 일컫는다.(중략) 홍산문화 발굴지 중 우하량 지역은 고대 동이족의 적석총 무덤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동이족은 “시신을 매장할 때 돌을 가지고 축조”했다. 이것이 석묘, 즉 적석총이다. 발굴 당시, 제 1호 적석총에서는 사람의 구멍을 전부 옥으로 메운 것이 나왔고, 반가부좌하고 있는 여신상도 발견되었다. 이 여신의 두 눈은 옥으로 만들어져 있어 흙속에서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음을 사진자료에서 본다.

옥은 의례용이었고 부장품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홍산문화에서 다량 출토된 옥구슬이는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선사유적지의 것과 동일하다.) 최근 신문 자료를 보자면, “흑피옥의 단소연대측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대에서는 시료 추정연대가 5천 년에서 1만 년, 지오르른에서는 6천 년 된 것으로 나왔다.”

흑피옥을 실마리로 ‘홍산문화’를 찾아 읽었다. 신화는 역사의 반영이고, 역사는 현실의 반영이다. 신석기 시대 홍산의 적석총에서 발견된 여신 응녀는 누구였을까?

김선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새로 나온 책

▲우리 시대의 레미제라블 읽기=레미제라블에 대한 다채로운 콘/텍스트 읽기. 소설과 영화, 뮤지컬에 이르는 다양한 ‘레미제라블’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변화해온 시대정신의 발현과 등장인물, 가치를 다채로운 관점에서 비평한다. ‘레미제라블과 프랑스혁명’, ‘연민을 이끌어내는 문학과 도덕적 상상력’,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로 다시 태어나다’, ‘연극, 뮤지컬 그리고 레미제라블’ 등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작인 일화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때 수많은 이들을 울렸던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弔辭)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각각의 글쓰기 예화로 만날 수 있다.

<책담·1만3000원>

▲대통령의 선택=각국 정상들의 선택들이 밝히는 정치·외교계의 숨은 이야기. 햄버거 외교, 캐비어 좌파, 프리덤 프라이까지 음식 관련 정치외교관 유행어가 생겨난 까닭은 무엇일까. 히틀러는 과연 채식주의자였을까, 크렘린 궁 요리사가 김정일 요리를 준비하며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일까, 버킹엄 궁 연회장의 숨겨진 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화려한

식탁 뒤에 감춰져 있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나본다. <알텐테북스·1만3500원>

▲내 무의식의 방=사바나 수렵민이 걸었던 그 길을 ‘꿈 분석’을 통해 다시 모색하는 책. 정신분석학자인 저자는 오랜 시간 분석심리학을 공부하고 직접 분석을 받아본 후, 두 이론을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책은 이론적인 내용보다 저자 자신의 꿈 분석을 포함한 실제 사례와 가상 사례 등 100가지 꿈 사례를 통해 대중에게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을 겸비한 꿈 분석의 방법을 전수한다. <책세상·1만5000원>

어린이 책

▲삼바를 추는 축구 소년=2014 월드컵, 2016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나라 브라질. 우리 아이들은 브라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1963년 브라질 집단 영농 정책 이민단을 소재로 평범한 초등학교생 영규와 한국을 찾아온 브라질 할아버지를 통해 브라질 이민 1세대의 삶과 브라질의 문화를 생생하게 전한다. <한솔수북·9000원>



▲나는 늑대예요=아이들에게 생태계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 자연이란 커다란 마을에는 무조건 나쁘지만 한

것도 무조건 좋지만 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양에겐 늑대가 나빠 보이지만 토끼에게는 양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뽕&뽕·1만2000원>

▲용어 사회 400=초등학교 중학년이 어렵고 방대한 사회 과목의 내용을 핵심 용어로 익힐 수 있도록 한 초등 사회 학습지. 지리, 사회문화, 정치, 경제 4권마다 핵심 용어 100개씩 학습, 시리즈 전권을 통해 초등 사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

▲길 위에서 마주친 우리 문화=이야기가 있는 우리 문화 여행서. 생가, 돌장승, 솟대, 누와정, 다리, 장과 문 등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책에 등장한다.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하찮지만 대단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저자는 톨타처럼 혼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 여행을 통해 각자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책을 펴냈다. <책피·1만5000원>

▲마성의 아이=치밀한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십이국기’ 시리즈. ‘십이국기’ 모든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마성의 아이’는 고등학교 교생인 주인공이 다카사토라는 신비한 학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회문제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그려 내고 있다. 시리즈는 각 권에서 이야기가 완결되기 때문에 ‘십이국기’를 순서대로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엘릭시르·1만5800원>

성됐다. 주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인포그래픽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미래나아이세움·각 권 9800원>

▲열세 살, 죽는다는 건 뭘까?=사춘기 어린이를 위한 심리 포도 에세이. 어린이가 이가 죽음을 입에 올리는 건 금기시되고, 불쑥불쑥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동심리전문가인 작가는 죽음을 잘 살기 위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문 제임을 이야기한다. (스콜라·1만1000원)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1억5천,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봉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 상가임대(5층) 학원 운영 하실분

울리모델 시설완비

지하주차장완비 주변주차가능

임대료저렴함 (보3천 130만)

상무지구 상가 5층 임대100평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상무점·운암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초 개강(금,토)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전가능

경매교육 한국경매학원

상무지구 12월8일 개강
매주 월요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평생 최고의
스터디반 모집중
(입학부터 매매까지)

010-6670-9800
상무점 062)382-5500
서구 치평동 1233-12번

운암점 062)513-4900
북구 운암동 434-29번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평가 2억7천 최저가 1억9천
②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평가 223억 최저가 156억
⑤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⑥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⑦ 남구 백운동 (토 315㎡, 건 635㎡) 감평가 5억 최저가 3억5천
⑧ 북구 문흥동 (토 216㎡, 건 353㎡) 감평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
⑨ 북구 문흥동 (토 193㎡, 건 338㎡) 감평가 2억3천 최저가 1억6천
⑩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토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평가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41억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①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평가 16억2천 최저가 11억3천
현재 건물 공사중 중단됨(투자적합)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